

고대인(古代人)과 산

다다 가즈오미(多田一臣)

—

‘고대인과 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기서 생각해보려는 것은 일본의 고대인이 산을 어떠한 세계로 포착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느닷없이 ‘세계(世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고대인에게 산이 임의의 세계로서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산이란 그 주변으로부터 구별되며 독자적 질서를 지닌 공간이었다. 다만 그 공간에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현실의 공간과 관념상의 공간이다. 실제 눈에 보이는 산이 현실의 공간이라면, 그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 공존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산이 이계(異界), 다시 말해 신(神)의 세계로서 여겨졌다는 것이기도 하다.

산은 공동체를 구분하는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즉, 산은 공동체의 경계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안쪽에서 보면 산 저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공동체는 이념적으로 폐쇄된 공간이므로 산 저편은 미지의 세계가 된다. 한편 산은 평범하지 않은 높이를 지니고 있다. 인간이 간단히 밟을 들일 수 없는 장소이다. 이처럼 산은 수평적인 면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면에 있어서도 인간의 일상생활로부터 유리된 세계로서 존재했던 것이다.

산은 하늘과 가까우므로 신이 강림하는 장소로 여겨졌다. 신이 강림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 영험한 힘(靈威)을 가져오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신과 인간이 접촉하는 장소가 어딘가에 마련되어야 했다. 그러나 신이 일상세계에 나타날 수는 없다. 일상세계의 부정함(ケガレ)은 신의 성성(聖性)을 모독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신의 분노를 사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에 강림하는 신은 일상세

계로부터 가장 먼 장소, 요컨대 깊은 산에 강립했다.

‘오쿠야마(奥山:깊은 산)’의 ‘오쿠(奥:깊은 곳)’란 바다로 말하자면 ‘오키(沖:먼 바다)’에 해당한다. 이 ‘오쿠’나 ‘오키’의 상대적 개념이 ‘헤(辺:주변)’이다. 인간은 깊은 산에 직접 발을 들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헤’에서 신과 접촉하게 되었다.

‘오쿠(奥)’와 ‘헤(辺)’의 관계는 현재에도 일본 신사의 오쿠노미야(奥宮)와 헤쓰미야(辺つ宮) 사이에서 엿볼 수 있다. 산봉우리에는 오쿠노미야가 있고 산기슭에는 헤쓰미야가 있는 관계이다. 이 경우 오쿠노미야에 참배하기 위해서는 헤쓰미야에 참배하는 이상의 엄중한 모노이미(物忌み:부정을 멀리하고 심신을 깨끗이 하는 기간)=재계(齋戒)의 절차가 요구되었다.

신과 접촉할 수 있는 ‘주변’의 산을 ‘하야마(端山)’ 또는 ‘도야마(外山)’라 부른다. 그 하야마나 도야마에서 사람들은 신의 영험스런 힘을 받아들였다. 마을과 가까운 하야마·도야마는 사람들의 생활에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二

후지와라쿄(藤原京)—지토 천황(持統天皇)의 도성(都城)이다. 나라(奈良)의 도성, 즉 헤이조쿄(平城京)로 천도하기 이전의 수도이다—그 중심부를 둘러싸듯 야마토 3산(大和三山)이라 불리는 세 개의 산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우네비야마(畝傍山)·가구야마(香久山)·미미나시아마(耳成山)이다. 이 중 가구야마가 가장 중시되었다는 것이 많은 자료를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아마 가구야마는 야마토(大和)의 왕권 존립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산이었던 듯하다.

그러나 가구야마는 우네비·미미나시아마와 비교하면 그다지 돋보이지 않는 산이다. 특별히 아름답고 정돈된 산이라고도 할 수 없다. 표고(標高)도 낮아, 산이라기보다는 언덕 비슷한 인상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야마는 중요시되었다. 그 이유는 가구야마가 하야마·도야마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구야마의 지세를 보면 그 동쪽 일대에 펼쳐지는 도우노미네(多武峰) 연산(連山)에 접하고 있다. 가구야마는 도우노미네의 하야마·도야마였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가구야마는 인간이 신과 접촉할 수 있는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가구야마가 아마노카구야마(天の香久山)라 불렸고, 또한 하늘로부터 강림했다는 전승을 담은 『이요노쿠니후도키(伊予国風土記)』의 일문(逸文), 그리고 『만요슈(万葉集)』에도 ‘하늘서 내린 아마노카구야마(天降りつく 天の香久山)’(3-257)라는 구절이 있는 것도 오쿠야마의 영험스런 힘을 가져올 하야마·도야마로서의 존재가 수직 방향으로 전환된 결과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오쿠야마와 하야마·도야마의 관계를 나타내는 실례로 다음의 가구라우타(神樂歌)를 보자. 가구라우타는 궁정의 제례의식인 가구라(神樂)에서 불려졌던 가요이다.

깊은 산에는 싸락눈 내리는 듯 가까운 산의 마사키노카즈라(마삭줄 덩굴) 곱
 게 물들었구나 곱게 물들었구나
 (深山には 霰降るらし 外山なる まさきの葛 色づきにけり 色づきにけり)

『고킨슈(古今集)』의 ‘가미아소비노우타(神遊びの歌)’(20-1077)에도 말미의 반복구가 생략된 형태로 이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깊은 산(深山)’은 오쿠야마를 의미한다. ‘깊은 산에는 싸락눈이 내리는 듯하다. 마을 가까운 산의 마삭나무 덩굴풀이 물들었구나’라는 뜻이 된다. ‘마사키노카즈라(まさきの葛)’은 마삭줄의 옛 이름이라 한다.

여기서 싸락눈이 내리거나 덩굴풀 색이 변하는 것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싸락눈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비이든 눈이든 그것들은 전부 하늘(異界)의 영험스런 힘이 강하게 깃든 것이라 여겨졌다. 오쿠야마에 싸락눈이 내리는 것은 하늘의 신령스런 힘이 그 곳에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의 의지에 따라 싸락눈이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らし’라는 조동사가 사용되었다. ‘らし’는 문법 교과서 등에서 근거가 있는 추량(推量)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설명되고 있다. ‘…한 듯하다(…らしい)’로 해석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물론 그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らし’의 용례를 보면 그 대상에 대한

직접적·단정적 언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고귀한 대상의 심정을 촌탁(村度)하는 것이 불경하다고 여겨질 경우(경의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 대상의 본질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리고 ‘らし’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노래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오쿠야마에 싸락눈이 내리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지라도 그것은 하늘의 의지에 따른 작용이므로 ‘らし’를 사용했다—이와 같이 필자는 생각한다.

오쿠야마에 나타난 하늘의 신령스런 힘은 어딘가를 통하여 인간의 눈에도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하야마·도야마의 ‘마삭나무 덩굴풀’이 물드는 현상이다. 이제껏 푸르렀던 잎이 붉고 노랗게 물드는 신비함 속에서 인간은 하늘의 신령스런 힘(그것은 계절의 영험스런 힘이기도 하지만)의 불가사의한 작용을 체감한 것이다. 이 가구라우타에는 오쿠야마와 하야마·도야마의 관계가 잘 나타나고 있다.

애당초 성스러운 산이란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과 끊임없이 접촉해야 한다는 관념(觀念)이 존재했던 듯하다. 『만요슈』를 보면 요시노야마(吉野山)를 읊은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다.

요시노 산의 미카네(御金) 봉우리에 끊이지 않고 비는 내린다 하네 때 가리
 얹고 눈은 내린다 하네 그 비 내림이 끊임없는 것처럼 그 눈 내림이 때가 없는
 것처럼 잔 틈도 없이 나는 사모한다네 사랑스런 그대를

(み吉野の 御金の岳に 間なくぞ 雨は降るといふ 時じくそ 雪は降るといふ
 その雨の 間なきがごとく その雪の 時じきがごと 間も落ちず 我れはそ恋ふる
 妹が正香に) (13-3293)

연가(恋歌)이다. ‘요시노의 미카네 봉우리에 끊임없이 비가 내린다고 한다. 때를 정하지 않고 눈이 내린다고 한다. 그 비가 끊임없이 내리듯, 그 눈이 때를 정하지 않고 내리듯, 잠시의 틈도 두지 않고 나는 사모한다. 사랑스런 그대의 모습을’이라는 의미의 노래이다. ‘도키지(時じ)’는 특정한 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다시 말하자면 시종(始終), 끊임없이 라는 뜻이다. ‘다다카(正香: タダカ)’의 다다(正: タダ)는 단지 그것뿐인 그 자체라는 뜻이다. 가(香: カ)는 그 때

상에서 감도는 영력(靈力)이나 영질(靈質)을 나타낸다. ‘향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매력’이라 바꾸어 말하는 것이 좋을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다다카(正香)’는 상대를 끌어들이고 강하게 매혹시키는 여인의 모습이라는 의미가 된다.

‘미카네 봉우리(御金の岳)’는 요시노야마의 동남쪽에 있는 긴푸센(金峰山)을 가리키며, 후대에는 산림 수행(山林修行)의 성지가 된 산이다. 이 시에서는 그 산에 끊임없이 내리는 비와 눈이 그 신성성을 보증하고 있다. 비나 눈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산에 끊임없이 하늘의 영험스런 힘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후지산(富士山)이 성스러운 산임을 읊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노래도 있다.

후지 봉우리에 내려 쌓이는 눈은 이듬해 6월 보름에 녹으면 또 그날 밤 내린
다네

(富士の嶺に 降り置く雪は 六月の 十五日に消ぬれば その夜降りけり)

(3-320)

‘후지산을 읊은 노래(富士山を詠める歌)’라는 제목이 달린 조카(長歌)의 답가이다. 작자에 대해서는 가사노 가나무라(笠金村), 다카하시노 무시마로(高橋虫麻呂) 설이 있으며,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후지 봉우리에 내려 쌓이는 눈은 6월 15일에 녹으면 바로 그날 밤 또 내린다’는 의미이다. 후지산의 신비함을 표현한 노래이다. 음력 4월부터 6월까지는 여름에 해당한다. 6월 15일은 그야말로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다. 그날에야 작년부터 쌓인 눈이 간신히 녹아내리지만, 그날 밤에는 다시 신설(新雪)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 노래는 단 하루도 산봉우리의 눈이 사라지는 날이 없다는 것을 읊고 있다. 『스루가노쿠니 후도키(駿河国風土記)』 일문에도 ‘6월 15일에 그 눈이 녹아 자시(子時) 이후 다시 새로이 내린다’라는 구절이 있어, 신설이 내리는 시각까지 제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눈으로 덮여있다는 것은 언제나 하늘의 신령스런 힘이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후지산은 성스러운 산으로 찬미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三

산의 신령함에 접촉하는 데에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다.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 그 영험스런 힘과 접하는 것이다. 신이 강림하는 성스러운 산은 곧잘 ‘가무나비아마(神なび山:신이 진좌(鎮坐)해 있는 산)’라 불렸다. 가무나비(神なび)는 ‘신의 주변(神の辺)’에서 유래한 말이라 하며, 미모로(ミモロ:신을 모시는 나무. 거울이나 실을 걸어 신을 모시는 자리)와 마찬가지로 신이 강림하는 산이나 숲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가무나비아마’라 불리는 산은 산세가 우미(優美)할 뿐 아니라 그 산록을 휘감듯 물이 흘러야 했다. 야마토의 미와야마(三輪山)는 ‘가무나비아마’의 전형으로, 그 산기슭에는 미와가와(三輪川), 즉 하쓰세가와(泊瀬川)가 흐른다. 아스카(明日香)의 ‘가무나비아마’는 이카즈치노오카(雷丘)라는 설과 다치마나데라(橋寺) 동남쪽의 미와야마(ミハ山)라는 설이 있으나, 역시 그 산기슭을 둘러 아스카가와(明日香川)가 흐르고 있다. 『만요슈』를 통하여 이를 확인해보자.

①미모로(三諸) 신이 두르고 계시다는 하쓰세가와 흐름이 끊임없듯 어찌 그대 잊으랴

(三諸の 神の帯ばせる 泊瀬川 水脈し絶えずは 我れ忘れめや) (9-1770)

②신이 깃든 산 미모로 신이 두르고 있는 아스카 시냇물은 흐름이 빨라……
(神なびの 三諸の神の 帯にせる 明日香の川の 水脈早み……) (13-3227)

③우마사케(味酒)야 신이 깃들인 산을 두르고 있는 아스카 시냇물의 빠른 물살에……

(味酒を 神なび山の 帯にせる 明日香の川の 速き瀬に……) (13-3266)

어느 것이나 ‘가무나비아마’의 기슭을 흐르는 냇물을 ‘두르다(帯ばせる)’, ‘띠를 두르고 있다(帯にせる)’로 표현하고 있다. ①은 ‘오미와노 마에쓰키미(大神大夫)가 나가토노카미(長門守)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미와(三輪)의 냇가에 모여 연회를 가지며 지은 노래(大神大夫の長門守に任せらえし時に、三輪の川辺に集

ひて宴せし歌’라는 다이시(題詞)가 달려 있다. 오미와노 다케치마로(大神[大三輪]高市麻呂)가 나가토노카미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일족이 모여 송별연을 열었다. 그 장소가 미와가와(하쓰세가와) 부근이었던 것은 오미와 씨(大三輪氏)가 미와야마(三輪山)를 받드는 씨족이었기 때문이다. 이 ‘미무로 신(三諸の神)’은 말할 나위도 없이 미와야마를 의미한다. 미무로의 뜻은 이미 전술한 바 있다. ‘미모로 신이 두르고 계신 하쓰세가와,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찌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있으랴’라는 정도의 의미가 된다. 미와야마의 산기슭을 흐르는 미와가와(하쓰세가와)가 미와야마의 영험스런 위력을 하계(下界)에 미치게 한다고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라쿠키(雄略記)’에는 아카이코(赤猪子) 설화라 불리는 전승이 수록되어 있다. 유라쿠 천황(雄略天皇)의 혼인 약조를 80년 동안이나 소중히 지키다가 결국 노파가 되어버린 여자의 이야기이다. 그 주인공의 이름이 아카이코이다. 아카이코는 본디 무녀(巫女)의 속성을 지닌 여성이었던 듯, 미와가와 부근에서 옷을 빨고 있었던 그녀를 천황이 발견했다는 점에서도 물가에서 신을 기다려 영접하는 무녀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아카이코의 본래 모습은 미와야마의 신을 모시는 무녀이며, 그런 까닭에 신의 옷을 미와가와에서 세탁하며 그곳에 왕립하는 신을 영접하는 ‘물의 여성’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미와가와(하쓰세가와)가 미와야마의 영험스런 힘을 전하는 강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②③은 조카(長歌)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두 노래 모두 아스카의 ‘가무나비아마’를 두르고 흐르는 아스카가와를 읊고 있다. ③의 ‘우마사케야(味酒を)’는 ‘가무나비아마’에 접속하는 마쿠라코토바(枕詞)이다. 미와가 신에게 헌상하는 술의 옛 이름이기에 ‘미와야마(三輪山)’에 접속하는 예가 많지만, 여기서는 아스카(明日香)의 ‘가무나비아마’에 접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카즈치노오카(雷丘)인지 다치바나데라(橋寺) 동남쪽의 미와야마(ミハ山)인지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두르다’, ‘띠를 두르고 있다’라 읊어지고 있는 강물은 끊임없이 산의 영험한 힘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그것은 냇물이 흐르는 모습에서 오쿠야마의 신비를 상상하고 있는 다음 노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나시가와(痛足川) 물결이 일어난다 마키무쿠(卷向)의 유쓰키(弓月) 봉우리
에 구름 일어나는 듯

(痛足川 川波立ちぬ 卷向の 弓月が岳に 雲居立てるらし) (7-1087)

‘구름을 읊다(雲を詠める)’라는 제목이 붙은 노래이다. ‘아나시가와에 물결이 일다. 마키무쿠의 유쓰키 봉우리에는 구름이 일고 있는 듯하다’라는 뜻이다. ‘아나시가와(痛足川)’는 ‘穴師川’로 표기하기도 하며, 마키무쿠가와(卷向川)를 사쿠라이시(桜井市) 아나시(穴師) 부근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痛足’라는 한자표기는 아나시(アナシ)가 ‘아아 발이 아프다(あな足痛し)’의 축약형임을 나타낸다. ‘유쓰키 봉우리(弓月が岳)’는 마키무쿠야마(卷向山)의 주된 봉우리(主峰), 즉 오쿠야마에 해당한다. 미와야마의 북쪽에 있는 산이다. 유쓰키(ユツキ)의 표기는 ‘由槻’이며 ‘유(ユ)’는 ‘재계(齋戒)’라는 뜻이므로 그곳에는 신이 강림하는 성스러운 느티나무(槻)가 있었을 것이다. ‘구름 일어나는 듯(雲居立てるらし)’의 ‘雲居’는 이 시에서는 구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일어나다(立つ)’는 구름이 피어 오른다는 뜻이지만, 원래 ‘일어나다’란 영적인 것이 수직적 공간을 점유하며 출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는 ‘물결이 일어난다(川波立ちぬ)’에 보이는 것처럼 냇물의 수량이 점차 불어나는 것으로 ‘유쓰키 봉우리’ 주위에 비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らし’가 사용된 이유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했기에 재차 언급하지 않겠다. 이것 역시 오쿠야마에 나타난 신비를 산기슭에 흐르는 냇물의 흐름으로 감지한다는, 고대인의 심경이 잘 나타난 노래라 할 수 있다.

四

지금까지 이야기한 산과 강의 관계는 후지산에서도 엿볼 수 있다. 후지산과 후지가와(富士川)의 관계가 그것이다. 시대가 내려가지만 『사라시나닛키(更科日記)』측에 그것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사라시나닛키』의 작자 스가와라노 다카스에노 무스메(菅原孝標女)는 10세 때 가즈사노스케(上総介)로 임명된 부

친을 따라 임지(가즈사(上総)는 현재 치바 현(千葉県) 일부)로 내려갔다가 4년 후 도성으로 돌아온다. 일기 전반부는 그 상경(上京)을 적은 여행에 관한 기록이다. 그 중에는 후지카와 부근에서 듣게 된 신기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후지카와란 후지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이룬 강이다. 그 고장 사람이 나와 말하기를, ‘어느 해 출타 중 너무 더웠기 때문에 이 강가에서 숨을 돌리고 있자니, 강 위쪽으로부터 누런 물건이 흘러내려와 어딘가에 걸려 멈춘 것을 보니 무언가 적혀 있는 종이였습니다. 건져 올려 보니 황색 종이에 붉은 색(丹)으로 글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읽어 보니, 내년 고쿠시(国司: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가 교체될 지방에 관한 지모쿠(除目: 지방관의 임명) 내역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고장(스루가노쿠니, 현재의 시즈오카 현(静岡県)의 고쿠시가 내년에 교체될 것이며 가미(守; 장관) 임명 내역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딸려 두 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기하고 놀랍다고 여겨 그 종이를 가져와 말려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듬해 임관 때 보니 이 종이의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 이 고장의 장관이라 적혀 있었던 사람이 부임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3개월 내 죽고, 또 다시 새롭게 임명된 사람이 그 옆에 함께 적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랄까,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듬해의 관리 임명은 금년에 이 산의 많은 신들이 모여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신비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富士川といふは、富士の山より落ちたる水なり。その国の人の出でて語るやう、‘一歳ごろ、物にまかりたりしに、いと暑かりしかば、この水のつらに休みつつ見れば、川上の方より黄なる物流れ来て、物につきてとどまりたるを見れば、反古なり。取り上げて見れば、黄なる紙に、丹して、濃くうるはしく書かれたり。あやしくて見れば、来年なるべき国どもを、除目のごと皆書きて、この国来年空くべきにも、守なして、また添へて二人をなしたり。あやし、あさましと思ひて、取りあげて、乾して、をさめたりしを、かへる年の司召などに、この文に書かれたりし、一つたがはず、この国の守とありしままなるを、三月のうちに亡くなりて、またなりかはりたるも、このかたはらに書きつけられたりし人なり。かかることなむありし。来年の司召などは、今年、この山に、そこばくの神々あつまりて為いたまふなりけりと見たまへし。めづらかなることに待さぶらふ’と語る。)

고쿠시를 임명하는 것이 ‘지모쿠’인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후지산에 모인 신들이며 후지카와 상류에서 떠내려 온 종이에서 그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야기이다. ‘지모쿠’의 결과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할 수밖에 없는 수령(受領) 계급에 속한 작자로서는 단순히 들어 넘길 수 없는 내용이다. ‘황색 종이’란 조칙(詔勅) 등에 사용되는 종이의 이미지를 투영한 듯하다. 고쿠시의 이름이 ‘붉은 색’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은 신의 뜻을 표현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도 후지산의 신비가 후지카와를 통하여 전달된다고 생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고장 사람의 직접적 체험을 들었던 만큼, 작자는 이 이야기에 강한 리얼리티를 느꼈을 것이다.

여기서는 ‘후지카와란 후지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이룬 강이다(富士川といふは、富士の山より落ちたる水なり)’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후지카와의 상류는 후에후키가와(笛吹川)라 불리며, 실제로는 고후 분지(甲府盆地) 부근에서부터 후지산 기슭을 휘감듯 흐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무나비아마’의 산기슭을 흐르는 강과 마찬가지로 생각해도 좋을 듯하다. ‘후지카와란 후지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이룬 강이다’라 기록한 것은 작자의 오해일지도 모르지만 후지산의 신비를 직접적으로 전달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 방식이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상 이야기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고대인과 산의 관계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산은 신의 세계이며, 그 때문에 인간이 그 세계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어딘가에서 신의 영험한 힘을 받아들여야 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순을 끌어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을 모시고 그 영험한 힘을 몸에 받아 새로운 힘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영험한 힘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하야마·도야마였으며, 혹은 ‘가무나비아마’의 산기슭을 돌아 흐르는 강이었던 것이다.